

하르트만의 가치세계에 있어서 미의 위치

N. Hartman' s Value Circles and Aesthetic Location



민 병 일

부경대학교

민 병 일

Min, Byung-II

홍익대학교 미술대학/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일본 후쿠오카공대 연구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부산광역시 문화상, MBC문화대상 심사위원
부산광역시 미술전문위원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기획운영위원
K.I.D.P. 디자인혁신지원사업 심의위원장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자문위원
아시아경기대회카바디종목 자문위원
South Australia대학교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장
디자인학부장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본론

II-1. 사실적 진술과 가치적 진술

II-2. 가치개념의 보편적 특성

II-3. 미와 미적가치의 영역

II-4. 미적가치의 특수성

III. 가치체계 내에서 미적가치의 위치

III-1. 미적가치와 인륜적 가치

III-2. 미적가치와 생명가치

III-3. 미적가치와 재가치(Guterwerte) 및
쾌적가치(Angenehmenwerte)

IV.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N.하르트만은 가치의 자립성을 주장했다. 가치는 실사(實事)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고 존립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내적 태도 즉 자발적 감정으로 나타나고 체험된 사실에 대한 가치반응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가치관은 직관에 의한 것이 되며 범주적 구조 속에서 가치는 그 순수성과 보편성에서 실현된다. N.하르트만은 가치에는 상대성과 절대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적가치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되는 가치종류라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육체와 용모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 등에서도 아름다움(美)이 발견된다.

이러한 미적가치 속에는 재가치(가치존재)와 쾌적가치가 토대를 이루고 미적가치를 제약하는데 재가치나 쾌적가치에 대한 미적가치의 비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재가치나 쾌락가치가 미적 가치속에 요소로서 재현하지 않는다.

둘째 재가치나 쾌적가치의 고저(高低)가 미적가치의 고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셋째 재가치나 쾌락가치의 실현은 미적가치의 실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토대관계들을 통하여 미적가치, 윤리적가치, 생명가치, 쾌락가치의 순서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N.하르트만은 미적가치는 보편적으로나 필연적으로나 윤리적가치, 생명가치, 재가치, 쾌락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이 가치종류들 가운데의 어느 것을 토대로 할 필요도 없다.

'미적가치는 아직 조금도 순서지을 수 없으며' 가치계 내에서의 미적가치의 지위에 대하여 우리는 다만 독특하게 높은 가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직은 밝힐 수 없다.

Abstract

N.Hartman advocated the independence of value. He stressed that the value does not rely on actual facts but stands independently. He attributed the value to inner attitude or spontaneity of feeling as well as reaction to experienced facts. This value comes from intuition and it comes from purity and universality in its categorematic structure. According to N.Hartman, relativity and absoluteness are complimentary to each other in the value. He asserted that the aesthetic value represents all kinds of beauty. This special quality of the beauty can be discovered in natural beauty and human physical appearance as well as art. This beauty comes out of the personality of humans.

This aesthetic value is comprised of the existence and comfort valu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ir aesthetic valu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and comfort values do not reappear as element in the aesthetic value.

Second, the level of the existence and comfort values does not determine the level of the aesthetic value.

Third, the realization of the existence and comfort values is not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aesthetic value.

This study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value ranks in order of aesthetic value, ethical value, life value, existence value, and comfort value. However, N.Hartman viewed that the aesthetic

value is not universally or inevitably based on the ethical value, life value, existence value, and comfort value in order and that nothing should be based on any of these.

In conclusion, the aesthetic beauty cannot be arrayed in order and nothing can be revealed but for just a distinctive one.

Keyword

N.Hartman, value Circles, Aesthetic Location

1. 서론

미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 해명의 역사는 인간인식에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에 대한 논의는 B.C. 5c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탐구는 피타고라스적 논의와 진·선·미 일체라는 칼로카가디아의 사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에 대한 논의는 자연 형이상학적 의미론에 접근하게 됨과 아울러 현실사회에서 하나의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Platon)의 아이디어(idea)이다. 물론 이러한 최상의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로스(eros)적 속성에서 플라톤은 그의 미학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가치는 '하나의 행위 내지는 추구하는 바의 성취를 가리키는 완성(consummation) 또는 완성적 가치 (consummatory value)'라 불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성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는 그 자신이 갖는 개인적이면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다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N. 하르트만은 미적가치는 보편적으로나 필연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가치는 일정한 실사자에게 부담됨으로서만 성립될 수 있으며 윤리적 가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격에 미적가치는 감성적 지각대상에 재가치는 물(物)에 부담되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적가치의 특수성과 미적가치와 생명가치의 상관관계를 미 중심의 위치에서 관조하여 볼 필요가 있다.

II. 본론

II-1. 사실적 진술과 가치적 진술

근대의 미학자들은 사실적 진술과 가치적 진술을 구분하였으며, 전자를 단순한 기술(記述)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후자를 모든 종류의 술어나 진술을 언급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¹⁾

이러한 가치의 자립성을 주장한 사람이 N.하르트만이다. 그는 Zur Grundlegung der Ontologie에서 '가치는 실사(實事)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고 존립하므로 <가치있음>, 즉 이법성에서의 가치자체는 실사에서 독립해 있는 것'²⁾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하르트만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내적 태도, 즉 자발적 감정으로 나타나고 체험된 사실에 대한 가치반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직관에 의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가치응답과 결부되어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범주적 구조 속에서 가치는 그 순수성과 보편성에 있어서 실사에서 그것이 실현되어 있으며 의존하지 않고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라는 말이 거의 절망적일 정도로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데, 문맥상 명확한 의미로 드러나서 쓰일 때나, 아니면 '가치 일반론'이라고 할 경우처럼 넓은 영역을 망라하여 막연하게 쓰이는 것이 적절할 때를 제외하고는 애매하게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³⁾

"인생에 있어서의 다종다양한 가치반응, 인간생활 전체가 가치에 의하여 관찰되고 있음은 거기에 환원에 의하여 가치본질이 통찰되도록 하는 실사(實事)의 권역이다. 가치는 분명코 가치감지작용(價値感知作用)의 이법적 대상을 이루고 있다. 가치는 그 객관적 내용인 것이다."⁴⁾

만약 가치가 객관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타당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가치의 타당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데 근거한다면, 오히려 가치는 인간의 한갓 평가 또는 심지어 관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하여 하르트만은 도덕의 역사적 다양함과 문화의 시대적 기호로 말미암아 시대에 따라 인간성질의 어떤 한 면 또는 다른 면이 선택된다. 이 선택은 분명히 가치의 본질 이외의 전혀 다른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변화할 수 없다.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그렇다고 생각됨(Dafürhalten)>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가치의식은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있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하르트만은 어떤 가치가 어떤 시대에 그 타당성이 변화함은 가치의 변화가 아니고 어떤 시기가 어떤 가치에 대하여 가하는 선택의 변화라고 한다. 즉 '가치감은 역사적으로 그 시야가 변천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사정은 본래, 문제가 가치의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따라서 가치의 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가치에 의하여 파악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이해가 된다.'⁵⁾

1) 특히 B.Jessup & M.Rader은 가치는 H-R-O라는 세계의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 H란 인식주체의 관심(Interest)이고, O는 관심의 대상(Object)이며, R은 이 양자의 관계(Relation)를 뜻한다면 가치의 분석론을 주장하고 있다. B.Jessup & M.Rader, p.27

2) N.Hartmann, Zur Grundlegung der Ontologie, ss.281

3) A.C.Garrett, The Moral Nature of Man, p.130

4) N.Hartmann, Zur Grundlegung der Ontologie, ss.283

5) ebd, s.285

이와 같이 가치는 일차적인 인간의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감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가치의 영역에 도달하였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그 발생적 과정에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감정에 치우친 감은 있지만, 수학적 명제가 임의로 구성될 수 없듯이 가치감도 임의로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 자체 가치 있는 것만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감은 수학적 통찰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이다. 다만 그 대상이 심리작용의 정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덮여져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가치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수학적 진리에서 빌려오게 되었으며 자립적 법칙과 권능을 가지고 주관과 대립하는 자립적 존재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하르트만에 있어서 가치의 개념은 다음 여섯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 재가치 (Guterwerte)

: 모든 유용가치와 수단가치 내지 순수한 고유가치와 같은 많은 자립적 가치영역의 전부를 지칭.

둘째 : 쾌락가치 (Lustwerte)

: 생명에 있어서 주로 즐거움이라고 불리우는 가치.

셋째 : 생명가치 (Vitalwerte)

: 이 가치는 생명에 부착하여, 생명의 높이와 힘의 발달 및 힘에 따라 계층이 구별된다. 생명에 요구되는 모든 것도 간접적으로 생명가치를 가진다. 즉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이 비생명가치이다.

네째 : 인륜적 가치 (Sittliche werte)

: 선(善)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되는 가치종류

다섯째 : 미적가치 (Asthetische werte)

: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되는 가치종류

여섯째 : 인식가치 (Erkenntniswerte)

: 본래적으로 오직 하나의 가치, 즉 진리뿐이다.

II-2. 가치개념의 보편적 특성

가치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가치는 세계의 실사존립자에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 가치는 인간의 견해 아래 놓이는가, 아닌가?

가치의 존립은 유용성에 있는가, 혹은 유용성과는 상관없이 존속하는가? 우리는 가치의 [있음Sein]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치에 대한 이러한 물음은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하르트만에 의하면, 가치에는 상대성과 절대성이 피차 상호보완적으로 있다. 하르트만은 먼저 가치의 상대성을 분석함으로써 절대성을 연역해 낸다. 이것은 가치의 연역에 있어 절대성으로부터 상대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으로부터 절대성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향을 하르트만이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르트만에 따르면, 본래적으로 가치는 실사와의 모든 관계 밖에서 성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실사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고, 실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의 상대성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N.Hartmann, Kleiner Schriften, Band III, s.328

하르트만에 의하면 가치와 실사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상대성이 나온다.⁶⁾

첫째는 '가치부담자에의 상대성(Relativität auf den Wertträger)'이다. 모든 종류의 가치는 일정한 실사자에 부담됨으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윤리적 가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격에, 미적 가치는 감성적 지각대상에, 재가치(財價値)는 물(物)에 부담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치는 그 부담자의 존재와 함께 성립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부담되어 있음이 곧 가치의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가치의 제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둘째는 '어떤 것이 그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상대자에의 상대성(Relativität auf denjenigen, "für den" etwas wertvoll ist)'이다. 예컨대 재가치는 그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것(영양가치, 이용가치 등)으로서만 가치가 있으며, 생물에 [대하여] 생명가치가, 관조자에 [대하여] 미적가치가 가치 있음과 같은 것이다. 윤리적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충실, 우정, 사랑은 그것을 받는 상대자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 이 가치는 물론 윤리적 가치에 부착한 재가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이다. 도덕적 태도는 언제나 인격에서 나와서 다른 인격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활 환경의 종류에 대한 상대성(Relativität auf die Artung der Lebenslage)'이다. 가치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제약된다. 모든 종류의 삶의 사태에 있어서는 각기 일정한 태도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예컨대 위기에 처해서는 용기가, 흥분상태에서는 자제가, 교제에는 예절이, 경쟁에는 공정이 가치 있는 것으로 된다.

이 세 번째 상대성에는 역사적 상대성도 속하게 된다. 노

예계급에 있어서의 시민의식이나 입헌국가에서의 맹목적 복종은 무의미하다. 이와같이 현실세계는 일정한 가치가 [사행적으로 되는] (Aktuellwerden, 가치의식에 대하여 타당하게 되는) 만큼 동시에 다른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가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가치가 사행성과 타당성 (Aktualität und Geltung)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 상대성은 가치 있음 자체의 본래적 상대성이 아니고,

1) 그 나타남 및 실사자에 있어서의 사행성의 존재조건의 상대성이며

2) 가치의식에 있어서의 타당성의 상대성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상태 아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리하여 소위 가치 상대성이란 그 사행성과 이에 따른 그 타당성의 역사적 비항상성(非恒常性, 즉 可變性)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실사와의 관련의 여하한 변천에도 불구하고 가치에는 일정불변의 비의존성(非依存性, Unabhängigkeit) 즉 절대성(絕對性, Absolutheit)이 남는다. 이는 곧, '예컨대 일정한 상태 아래서의 일정한 태도의 가치 있음(Wertvollsein)으로서, 가치성격 자체의 또는 본래적으로 가치 있음의 절대성인 것이다.'⁷⁾

이 절대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치 있는 실사자는 일시적이더라도 그것의 가치 있음 자체는 초시간적이라는 데서 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만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⁸⁾

7) ebd., s.330

8) ebd.

영원한 가치는 바로 무상한 것 속에 깃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정신(Hegel의 의미에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⁹⁾

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의 영역에 열중하지만 가치는 이와 상관없이 존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는 이법적 존재(ideales sein)이다. 그러나 이 존재는 대자존재(Fursichsein)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제약에 의존해 있는 존재이다. 가치 파악작용에 대립시켜질 때 비로소 가치의 자체존재(Ansichsein)가 뚜렷해진다.

하르트만에 의하면, 가치상대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진상은 가치의식을 움직이는 힘들에 있다. 이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가치에, 둘째로 생활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셋째로 역사적 정신의 자기운동에 이 힘이 있는 것이다. 가치의식의 움직임(Bewegung)은 [위로부터(von oben)]는 가치에 의하여, [아래로부터(von unten)]는 생활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제약되며, 동시에 정신의 자기운동에 의해서도 제약된다.

'한 시대의 정신은 자기 앞에 제기된 일정한 가치군(價値群)이 사행적으로 되게끔 하는 과제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규정된다.'¹⁰⁾

예컨대, 투쟁의 시대에는 용기가, 정치적 건설의 시대에는 정의와 시민의식이, 경제적 발전의 시대에는 근면과 성실이 먼저 사행적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정신생활은 자기편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전망하게 된다.' 자기가 추구한 가치가 이미 실현되고 나면 새로운 다른 가치를 다시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하르트만의 이른 바 '두 세계의 시민 (burger zweier welt)' 으로서의 인간이 대두된다.

"인간은 자연물로서는 어디까지나 자연법칙의 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치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가치로 향하는 자로서는 가치론적 규정을 받고 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두 종류의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향, 심정 및 태도 속에는 벌써 이 두 종류의 규정이 포함되고 있어 이 두 가치가 인간의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것이 칸트의 이른바 자연인(自然人)과 이성인(理性人)이다."¹¹⁾

위의 세 가지 동인(動因)이 가치의식의 변화를 유지시켜 운동을 계속하게 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가치의식의 혁명이며, 때로는 급격한 변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자체는, 모든 이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에 영향을 입지 않고 존속한다. 마치 플라톤적으로 표현하면, 미의 이데아 또는 선의 이데아가 개별물(個別物) 속에 임재(臨在, Parousia)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II-3. 미와 미적가치의 영역

앞에서 우리는 미적가치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되는 가치종류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9) ebd, s.322

10) ebd.

11) 허영석, 윤리학의 근본문제, p.33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말처럼 다의적으로 쓰여지는 말도 흔하지 않다. 예컨대, 아름다운 비너스 상, 아름다운 야생곡, 아름다운 설경,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소년, 아름다운 양보 ... 등등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적(美的)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美)라는 형용사를 잘못 사용한 것이나 도덕적 선을 미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용한 것, 재미있는 것, 유쾌한 것, 혹은 인륜적으로 선한 것 등과 같이 많은 것을 ‘미’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다.”¹²⁾ 고 하르트만은 말한다. 예로서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신체 속에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하르트만은, 정신적 미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며, 이와 같이 미적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혼동은 낡은 미학이 범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와 미적가치는 어떻게 다르며 그것은 어디에서 성립되는가? 미가 미학의 포괄적인 대상인가? 또한 선이 모든 도덕적 가치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듯이, 미는 모든 미적대상의 보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르트만은 ‘미가 미학의 포괄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세 가지 반박’¹³⁾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적으로 우수한 것이 언제든지 반드시 미인 것은 아니며,
둘째, 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미적가치가 있으며,
셋째, 미학은(미뿐만 아니라) 추도 취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셋째 근거가 가장 약하다. 미학은 물론 추도 취급한다. 그러나 모든 가치는 본질에 있어서 그 대립항, 즉 비가치(Unwert)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동시에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 언제든지 함께 문제로 된다. 따라서 추는 미의 이면인 것이다. 그러나 미의 모든 차원에서 추가 맞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작품에서는 미와 추가 맞서지만, 자연대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이 산출하는 모든 것은 미적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추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자연의 특징, 즉 그 법칙성에 있는 것이지 결코 미의 본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첫번째의 문제, 즉 예술적으로 우수한 것이 언제든지 반드시 미는 아니라는 반박을 검토하여 보자. 우선 그는 예술적 공적은 훌륭하지만, 그 대상은 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슷한 예로서 못난이 목각인형(木刻人形)도 마찬가지이다. 못난이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품은 아름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는 바로 다른 측면에 있는 것이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비미(非美)를 은폐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하르트만은 ‘미는 바로 표현 그 자체에 달려 있다’¹⁴⁾ 고 한다.

12) 이러한 이유를 N. Hartmann은 ① 도덕의 근엄성을 은폐하고 부드럽게 하려는 경향, ② 인간의 외면적이고 가시적인 자세를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것의 표현으로 보는 습관, ③ 선과 미를 동일성으로 주장하는 플라톤 이래의 편견을 들고 있다. N. Hartmann, Aethetik, 전원배 역, p.367

13) 같은 책, p.21

14) 같은 책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르트만은 ‘미를 미학상의 보편적인 근본가치’¹⁵⁾ 라고 보며, ‘훌륭한 예술적 효과를 지닌 모든 것을 미 속에 포섭하는 것이 적당하다’¹⁶⁾ 고 생각한다.

두번째 반박은 미가 미학적 가치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의 미는 협의의 미이다. 미 이외의 미학적 가치로서 숭고(崇高), 우미(優美), 유쾌(愉快)한 것, 매력적인 것, 희극적(喜劇的)인 것, 비극적(悲劇的)인 것 등등 열거하기 곤란할 만큼 미적 가치의 종류는 많다. 그러나 이것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가치범주(價値範疇)가 있어야 할 것인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려야 하는가? 이 가치범주는 미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때 이것은 미에 대한 광의의 의미가 된다. 미의 의미를 이와 같이 광의로도 협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논쟁의 계속적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로도 협의로도 사용될 수 있는 미를 미학의 포괄적인 대상으로 단정함으로써, 미학의 중심적 지위로 올려놓는 일은 결국 논쟁이나 언쟁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하르트만은, “미를 유개념(類概念), 즉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기타의 모든 미적가치를 이 유개념에 포괄되는 종개념(種概念)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¹⁷⁾ 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와 미적가치를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구분했을 때, 미와 미적가치에 대한 더 이상의 혼용은 방지될 수 있으며, 또한 미는 미학의 포괄적 대상으로 되고 보편적 근본가치가 되어 미학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적가치의 본질규정은 가치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미적대상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다.

15) 같은 책

16) 같은 책, p22

17) 같은 책, p23

II-4. 미적가치의 특수성

미적가치가 다른 가치들로부터 구별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르트만에 따르면, “미적인 가치는 독특하고, 높은 종류의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미적가치가 독특하다는 것을 그 성격에서 밝힘과 동시에, 그것이 높은 가치라는 것은 현실과의 간격이 가장 크다는 데서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미적가치를 예술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도 발견하며, 사람의 육체와 용모의 아름다움과 같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미에서는 물론 인간의 전 생활태도, 행위 및 체험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하르트만은 묻는다. ‘도대체 이 세계 내에 미적 측면을 가지지 않은 대상이 있는가? 미는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세상 전체가 -그것이 미적인 가치나 무가치의 징후를 가지는 한- 미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적가치의 주된 특성 중의 하나는, 규정력이 열등하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가치는 일반적으로 규정력(Determinationskraft)이 약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미적가치의 규정력은 더욱 열등한 것이다. 먼저 같은 이법권내에 있는 다른 존재와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의 규정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가치계 내의 다른 가치와 미적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미적가치의 규정력이 보다 더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규정력이 약하다는 성격을 가진 가치들의 존재권역인 가치계 내에서도 미적가치는 다른 가치와는 달리 더욱 규정력이 약하다. 윤리적 가치는 우리에게 과제를 부과하며, 실현되어야 할 당위와 경향을 지니고 있다. 미적가치는 이와 반대이다. 미적가치에서는 강요가 생겨나지 않

으며, 우리들이 이 미적인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적가치는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것을 즐기라고 요청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 가치는 전인격을 향해서 요청을 하는데 반해 미적가치는 이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요청을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미적가치들이 다른 가치들 보다 규제력이 더욱 빈약하다는 것은 실사범주 및 윤리적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밝혀진다.

따라서 미적인 가치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는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오히려 현실에 반대해서 창작을 한다. 예술가는 나타나게 할 뿐이며 묘사를 할뿐이다. 따라서 '미적인 가치는 실현되지(realisieren)를 앓고 오직 현상(Erscheinung)되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미적가치들은 실사로 침투하지 않는다. 이는 곧 미적가치 자체는 현실 속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 부동하며 그 위에 떠 있다. '미적가치는 현실적인 것에 관계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자신 또한 현실적인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도 않는다.'¹⁸⁾

이를 단순화시키면 하르트만에 있어서 미는 곧 미적가치이며 예술은 정신으로서 미를 미적가치로 파악하며 예술은 정신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적가치는 실사세계에 대한 규정력 즉 실현에는 무력하지만, '미적가치의 영역이나 현상의 영역 그리고 자체 존재 없는 대상의 영역에서는 미적가치가 분명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¹⁹⁾

다시 말해서 창작하는 예술가나 감상하는 관조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적가치들이 매우 큰 실사적 힘으로 규정된다. 이 힘은 예술가나 관조자를 가장 깊이 붙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 아니하며, 그 뿐만 아니라 삶과 행복과 개인적 운명과 같은 모든 것을 미적가치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또 하나 미적가치에 있어 기본적인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유의 법칙 Gesetz des besitzes이다. 이 때의 소유는 일상적 소유와는 다른 소유이다. 예컨대 많은 돈을 내고 예술작품을 사들이는 사람이 - 미학적인 뜻으로 이해하자면 - 작품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미적가치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소유의 법칙은 하나의 순수한 정신의 법칙으로서, 예술작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 예컨대 숲이나 산의 경치, 혹은 해가 질 때의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등에도 타당하고,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내적인 아름다움에도 타당하며, 인간의 성격이나 운명을 짚어지고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움 등에도 타당하다. 모든 아름다움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칫 미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사치품이며 무용(無用)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생활은 절박하고 엄숙하며 치열한 생존경쟁인데, 미와 예술은 이러한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한 것이다. 하르트만도 '미적가치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무용한 것'²⁰⁾ 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무용(無用, Unnutzes)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18) N-Hartmann, Kleiner Schriften, Band III, s.319

19) ebd., s.321

20) N-Hartmann, Aesthetik, s.387

21) 같은 책, p.388

그런데 '절대적인 고유가치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에 소용되지 않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미적가치는 고유가치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가치는 미적가치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²²⁾

하르트만에 따르면 이리하여, 미적가치가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무용하지만, 다른 가치는 미적가치에 대해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적가치는 다른 가치에 이용될 수 없지만, 미적가치를 위하여 다른 가치는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르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미적가치의 적극적 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무용]한 것은 결코 없어도 무방한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것은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무용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은 무용한 것이다.'²³⁾

실제 생활에 있어서 미의 무용성에 관한 견해는 미적가치의 소극적 규정에서 나온 것이며, 미적가치를 보유하는 작품이 생활연관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하고 한정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치의 의미부여는, 미적가치의 적극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생활연관과의 보다 깊은 합치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미는 유기체의 생활에 유용한 것이 아니며 정신생활에서도 유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미는 정신적 생활의 한 절정을 차지하며 이 정신적 생활 전체를 내리 비춰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신적 세계에 있어서는 최대의 효과가 미에서 나올 수 있는 것'²⁴⁾ 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생물에게는 생명이 무용하며 유기체에게는 정신이 무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정신은 그것이 일단 생성되고 나면 세계에 대하여 의의와 의미를 가져오는 것

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미적가치의 성격에 관한 결론을 하르트만은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미적가치는 오로지 실재적인 그 무엇이 가진 가치가 아니며 또 재가치·생명가치·도덕가치와 같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도 아니며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무엇이 갖는 가치, 따라서 단지 대아적 존재자만이 갖은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²⁵⁾

22) 같은 책

23) 같은 책

24) 같은 책

25) 같은 책, p.388

III. 가치체계 내에서 미적가치의 위치

가치일반의 영역에 있어서 미적가치의 위치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종류의 가치들에 있어서는 가치의 실현(實現, realisation)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적가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미적가치는 실사화(Realisieren)'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가치가 부착하는 부담자는 단순하게 실사적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존재방식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다. 단지 전경만이 실사적이기는 하지만, 이 전경은 미적대상에 있어서 극히 작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은 비실사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적가치가 이 배경에만 매이는 것도 아니다. 미적가치는 오로지 현상 그 자체에만 매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적가치를 유용한 것, 유익한 것, 생활과 생활기능, 인간적 행동과 지조(志操)등의 가치와 비교하면 가치의 본질에 있어서 뚜렷한 대립점이 발견된다. 즉 다른 가치의 경우는 어디서나 가치 부담자의 실사성(Realität)이 중요사(Hauptsache)가 되고, 가치의 실사화를 목표로

하는 경향과 작용이 나타나지만, 이와는 달리 오로지 미적 가치만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가치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적가치와 다른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들 사이에 토대관계가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토대관계는 인륜적 가치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토대관계의 성립은 미적가치의 자립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임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Ⅲ-1. 미적가치와 인륜적 가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미의 개념이 도덕적 의미로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르트만, 지난 날의 미학이론은 미적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러한 이론은 [일면적 (einseitig)]이며, [가치혼동 (Wertvermengung)]이고, [다른 가치로의 환원 (Rückführung auf andere werte)]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르트만은 미적가치는 인륜적 가치에 환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적가치와 [윤리적]가치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윤리적 가치의 측면이 올바르게 다루어진 작품이야 우리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적수용은 인간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반영(反映)의 특수형태이다. 이러한 미적인 특수성은 수용방식이 아름다운 것과 관련지어진다. 여기서는 복합적인 관계(예컨대 비장, 웅장에 대한)나 대립되는 관계(예컨대 추(醜)나 천(賤)에 대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런 세계에 대한 미적수용은 이론적, 도덕적수용과 긴밀히 결합되고 예술작품의 형태로 나타난 미적수용의 결과가 인식적이거나 도덕적, 교육적인 효능을 나타냄은 바로 그 때문이다.²⁶⁾

그러나 이 주장은 미적수용의 객관적 반영에서 거론시킨 것이며 예술미 말고도 다른 미들이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상수리나무나 늪은 사슴이나 숲속의 계곡이나 하늘 위에 반짝거리는 성좌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도덕과는 상관없는 아름다움이다. 이와 같이 미적가치가 인륜적 가치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적가치는 모든 존재에 부착할 수 있지만, 윤리적 가치는 인간에게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위 주장의 핵심은 '선한 자의 쪽에 동정이 가야 된다.'는 명제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정당한 쪽에 동정이 안가는 작품에 미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동정만으로서 작품의 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형식이라는 전혀 별개의 질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윤리적 감정은 다만 형식을 위한 한 전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술형식은 도덕적 생활의 타락과 그 어두운 쪽까지도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예술적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적가치를 윤리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물론 미라는 술어를 첨가하고 추라는 말은 부가하는 이유는 도덕의 근엄성을 은폐하고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외면적이고 가시적 자세를 내면적이고 도덕적 표현으로 관찰하려는 습성이 있다. 다시말해 가시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여기서 미가 강조되며 모든가치는 하나의 근본가치로 환원시키고 있다.'²⁸⁾

2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p.125

27) 같은 책

28) 류명걸, 미학강론, 형설출판사, p.364

위 주장에서의 인륜적 가치는 단지 소재로서 예술형식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륜적 가치와 비가치는 미적가치의 성립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인륜적 가치는 미적가치의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진정한 극적(劇的) 긴장은 자기의 인륜적 감정을 가지고 정의(正義)의 편에서는 사람, 유능하고 용감하고 의협적이며, 질투와 표리부동을 증오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륜적 가치안(價値眼)을 갖춘 자만이 미적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미적가치가 인륜적 가치의 제약을 받고 있다'²⁹⁾는 말과 다름 아니다. 이 제약이 토대관계(土臺關係)를 의미하는 분명하다. 미적가치는 오직 어떤 인륜적 가치의 [위(uber)]에, 즉 인륜적 가치를 올바르게 느끼고 또 이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곳에서 [솟아(erheben)]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 관계는 모든 시문학(詩文學)과 희곡, 즉 서사시, 서정시, 소설에 동일하게 있다. 왜냐하면 대체로 윤리적 가치의 측면이 소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과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조형미술에서도 이 관계가 펼쳐진다. 예컨대, 빈사(瀕死)의 글라디아토르(Gladiator: 고대 로마의 검투사)를 표현한 회화가 그것이다.

셋째, 게다가 내면층에서 심리적 생활이 현상할 수 있는 한에서의 비표현예술(非表現藝術)에서도 이 관계는 발견된다. 물론 여기서는 이 관계가 일정하지 않게 그리고 전체적 분위기로서만 느껴질 뿐이다.

29) 같은 책, p.391

넷째, 동일한 관계가 인간미에서도 재현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 전체현상에 있어서의 미와 비미(非美)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인간의 외면에 나타나는 도덕적 공과(功過)를 올바르게 느끼고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가치는 이 토대에 제약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 즉 가치론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³⁰⁾

윤리적 가치를 토대로 하는 미적가치는 그러므로 일면적으로는 윤리적 가치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자립성을 가지는 바, 여기에는 독특한 세가지 독립성이 있다.

첫째, 인륜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미적가치에는 인륜적 가치가 가치의 색조(色調)로서나 혹은 가치의 성분으로서나 재현하지 않는다.

인륜적 가치가 미적가치의 토대가 된다는 말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어떤 장면의 극적 가치는 개개인의 제 도덕적 가치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전제할 뿐이다. 따라서 그 장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인륜적 가치가 결여하였더라도, 미적가치는 성립하는 것이다.

둘째, 미적가치의 고저(高低)는 그 토대가 되는 인륜적 가치의 고저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작가가 내세우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괄목할 만하고 극히 중요한 극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극중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인륜적 인가에 따라 미적가치의 고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30) 같은 책, p.392

셋째, 미적가치의 성립(Zustandekommen) - 실현(Realisation)이 아닌- 도 그 토대가 되는 인륜적 가치의 현실화(Verwirklichung)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미적가치는 선의 승리(Sieg des Gutes), 다시 말하면 극적 진행의 내용에 있어서의 선의 실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조건, 즉 인물과 장면의 예술적 형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적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토대관계에서 의존의 계기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소재의 형성에 서만 윤리적 가치와 비가치가 성립하고 유효하며 올바르게 가치감수성(價値感受性, wertempfindung)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Ⅲ-2. 미적가치와 생명가치

생명가치 또한 미적가치로 토대가 된다. 이 관계는 조형예술에서 쉽게 확인된다. 조형예술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체를 표현한다. 이러한 신체적 표현에는 근원적인 생명감이 넘쳐흐른다. 거기에는 운동, 노력, 탄력, 육체적인 성공, 또는 휴양, 긴장, 행복 등이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생명감이 솟아오르는 이 가치가 생명가치인 것이다.

또 인체를 볼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성적 감정(性的感情)도 이에 속한다. 이 성적 감정은 반드시 성적 충동과 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때도 있다. 예술가의 가장 날카롭고 독창적인 안목은 본래 성적 감정에 수반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미학적인 미의 감정에게까지 순화한다. 이리하여 바로 여기서 생명가치와 미적가치가 서로 밀접하게 얽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가치는 미적감정을 환기(喚起)하고, 그 다음에 미적가치는 생명감정과 성적 감정에 결정

적인 영향을 준다.

이 근본적 관계가 다름 아니라 바로 토대관계이다. 미적가치의 토대는 생명가치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적가치는, 표현된 육체가 거기에 해당하는 생명이라는 질(質)을 가지고 또 관조자가 올바른 가치감정을 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질을 감각하는 데 매이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지체(肢體)가 가진 힘이나 탄력성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관조자에게 없다면 따라서 그는 조각의 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게 건전한 성적 감정이 결여하면 그는 젊은이의 육체미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생명의 자극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가치는 생명가치에 의존한다. 물론 성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났을 때 예술적 향수가 불가능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럴 때는 예술이 아니라 저속한 관능물(官能物)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생명감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미적가치가 관조자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가치를 옹기느끼지 못하고서는 미적가치, 특히 형식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바로 이 점에서만 미적가치는 생명가치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점에서는 비의존적이다. 다시 말해서 미적가치는 자립적인 것이다.

미적가치의 생명가치에 대한 비의존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미적가치는 내용적으로 비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생명가치는 미적가치 속에 재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력의 가치는 그 미적가치 속에 재현하지 않으며 활동능력은 어디까지나 미적가치의 전제에 불과하다. 성적 가치도 그와 마찬가지로 미적가치의 예술적 감정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미적가치와는 전혀 별개의 가치로 느껴지는 것이다.

둘째, 가치 높이의 비의존성도 거의 자명하다. 다시 말해서 가치의 고저관계에 있어 미적가치는 생명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적 가치는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지 표현된 소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미적가치는 생명가치의 실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회화에 있어서의 순교(殉敎)의 광경이나 책형(Kreuzigung,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형벌) 그림에서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들은 모두 생명가치의 패멸(敗滅)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적가치와 생명가치의 이러한 관계는 비단 조형예술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표현되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며, 특히 문학과 음악에서도 발견된다. 문학에 있어서는 소재 속에 빈곤, 기아, 질병 등 기타 고난과 싸우는 장면, 심각한 정열, 야비한 질투, 연약하고 수줍은 사랑이 싹트는 장면이 들어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명가치의 올바른 감각이 그 밖의 보다 높은 모든 가치감각의 토대가 된다. 음악에 있어서는 운동의 외적인 리듬으로부터 알락, 갈망 기타 생명감정에 이르기까지의 육체적 상태가 발견되는 것이다.

Ⅲ-3. 미적가치와 재가치(Guterwerte) 및 쾌적가치(Angenehmenwerte)

미적가치와 재가치, 미적가치와 쾌락가치 사이에는 친근성(親近性, Verwandtschaft)과 대립성(對立性, Gegensatz)이 있다. 먼저 미적가치와 쾌적가치 사이에서

의 친근성은, 미적 향수작용(享受作用)이나 미적 지향작용(指向作用)이 유쾌한 작용이라는 데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쾌적가치는 감성적 소여에 좌우되는데 반해 미적가치는 현상관계 혹은 현상관계와 대등한 형식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미적 향수작용은 감성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미를 관조하는 면에서만 감성적일 뿐이고, 쾌감을 느끼는 면에서는 감성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쾌감은 제2차적인 관조, 즉 보다 높은 초감성적 관조에서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쾌감의 성질과 대상의 성질은 어디까지나 구별되는 것'³¹⁾ 이기 때문이다.

미적가치와 재가치와의 친근성은, 두 가지 모두 주관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고, 현존존재(現前存在)를 통한 가치의 제약을 받는다는 데 있다. 물론 재가치의 경우에는 정신적 생활이 없는 생물을 위한 가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2차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그 누구를 [위하여(fur)]란 점에서 미적가치와 재가치가 동일한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재가치에 있어서는 관계의 의식존재에 상관없이 주관과의 실사적 관계가 중요하지만, 미적가치의 경우에는 독특한 의식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재의 경우에는 그 무엇이 A를 위해서 유용한 것이기만 하면 A가 그것을 의식하든 말든 상관없이 A를 위한 재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의 경우에는 관조하며 감수하는 A에게 [대하여] 어떤 현상관계가 성립하는 때에, 다시 말해서 A가 대상의 실사적 전경을 투시하고 이 전경 속에서 배경의 계층적 관계가 A에게 [대하여서] 나타날 때, 미가 A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31) 같은 책, p.39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적 가치는 미적가치의 토대가 된다. 이것이 명백한 이상 재가치도 간접적으로는 미적가치의 토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재가치는 윤리적 가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희곡과 소설은 행동이 일어나는 생활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물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행동의 올바른 이해나 또는 어떤 생활상황의 올바른 극적 평가는 올바른 가치감을 가지고 재가치를 파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대로 쾌락가치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괴로움이 무엇이고 달콤함이 무엇이며, 비위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자제(自制)는 이 쾌·불쾌의 계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쾌·불쾌의 독특한 가치성격을 올바로 느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상황과 동시에 행동, 성격 내지 운명이 곡해(曲解)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가치나 쾌적가치는 분명히 미적가치의 토대가 되고, 미적가치를 제약한다.' 그런데 재가치나 쾌적가치에 대한 미적가치의 비의존성은 다른 가치 관계에서보다도 더욱 뚜렷한 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재가치나 쾌락가치가 미적가치 속에 그 요소로서 재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에 있어서는 실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현상하는 상황이 중요하지만, 재나 쾌·불쾌에 있어서는 실사성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나. 재가치나 쾌적가치의 고저가 미적가치의 고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극적인 갈등이 중대한 삶의 문

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찮은 기회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 재가치나 쾌락가치의 실현은 미적가치의 실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미적가치는 실사화되는(Realisiert) 것이 아니라, 현상(現象, Erscheinen)에만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운명이 가지는 의의와 미적가치를 위해서는 재가치나 쾌락가치가 기초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보면, '토대관계가 미적가치와 기타 모든 가치 종류 사이의 전분계선(全分界線)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오직 진리가치만이 제외된다.' 왜냐하면 진리가치에 있어서는 생명진리(Lebenswahrheit), 본질진리(Wesenswahrheit) 등과 같이 복잡한 별개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토대관계와 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치도 미적가치를 제약하는 지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적가치가 진리가치보다 가치등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토대관계들을 통해서 미적가치, 윤리적 가치, 생명가치, 재가치, 쾌락가치의 순서로 등급 순위가 매겨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르트만은 토대관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미적가치는 보편적으로나 필연적으로나 윤리적 가치, 생명가치, 재가치, 쾌락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이 가치종류들 가운데의 어느 것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적가치에 대한 다른 가치의 '토대관계는 보편적도 아니고 필연적도 아니라'는 바로 여기에 미적가치의 위치에 대한 해답이 있다. 미적가치는 현상으로서 존립하는 가치 즉 대아적(對我的) 존재자만이 갖는 가치이다. 이는 단지 대상적 존재자만이 갖는 가치로 규정지을 수 있다. 또한 미적 대상은 관조나 감상이라는 특정한 작용의 대상으로서만 존립한다. 그러나 미적가치는 다른 가치와의 개별적 관계 속에서만 토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보편적 필연적으로 토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적가치는 아직 조금도 순서 지을 수가 없는 것'이며, 가치계 내에서의 미적가치의 지위에 관해서 우리는 다만 그것이 독특하게 높은 가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직은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N. Hartmann, 『Aethetik』, 전원배 역, 을유문화사, 1997.
- 2). _____, 『Zur Grundlegung der Ontologie』
- 3). _____, 『Kleiner Schriften』, Band III.
- 4). B. Jessup & M. Rader, 김광명 역,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 1994.
- 5). A. C. Garrett, 『The Moral Nature of Man』, The Ronald Press, 1952.
- 6). 하여석, 『윤리학의 근본문제』, 형설출판사, 1981.
- 7). 김주완, 『존재학적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철학과, 1993.
- 8). 배장섭, 『하르트만(N. Hartmann)에 있어서의 미학의 본질에 관한 소고』, 대구가톨릭대학원 철학과, 1997.
- 9). 류명걸, 『미학강론』, 형설출판사, 1999.
- 10). 김주완, 『미와 예술』, 형설출판사, 1994.
- 11).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1995.
- 12). 하기락, 『河岐洛 논문집』 제4권, 자주인연맹, 1987.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